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

요한계시록 7:9~17

【인도자를 위한 예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은 스탈린 시대에 러시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년 동안 수용 생활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었으며, 그래서 나는 주저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내가 함께 있어서 축복이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천로역정」을 지은 존 버니언은 평신도 설교자로도 유명했는데, 그는 설교한다는 이유로 영국의 베드퍼드 감옥에 12년간 투옥되었습니다. 긴 투옥 생활에 지칠 법도 하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그 기간에 활짝 꽃피었습니다. 그는 투옥 기간에 자신의 옛 성품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 어떻게 죽는지 경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그는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천로역정」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위대한 기독교 문학 작품을 썼습니다. 모든 성도는 현재의 삶에서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고, 한숨과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완전하고 온전한 나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7:9~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이 본문의 목적은 하늘나라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서 복된 삶을 살도록 결심하게끔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은 9, 11, 15, 17절에 등장하는 ‘보좌 앞’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신약성경에 총 62회 사용되었으며, 요한계시록에만 47회 등장합니다. 요한은 유난히 이 보좌에 관심을 가지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상의 신이며 전 세계의 통치자였던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가이사의 보좌’로 인해 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선명하게 묘사함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가이사의 보좌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진정 우리의 왕임을 선포하고 독자들을 위로합니다. 요한 자신도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기에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9~10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이십니다.

큰 무리가 입고 있는 ‘흰옷’은 ‘정결, 순결, 승리’를 의미합니다(9절). 무리의 손에 들려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불사조’를 의미하는데(9절), 이는 죽어도 사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로마를 밀어내고 유다 땅을 새롭게 세울 정치적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지상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상 교회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리가 보장된 천상 교회를 소망했습니다. 천상 교회는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는데, 이는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상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상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

좌와 어린양 앞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상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10절). 하나님과 어린양은 모든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적용과 나눔 I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날 때, 성도가 품어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7장에 앞선 6장은 일곱 인을 뎌 후 나타날 진노의 심판을 보여 줍니다. 특히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 낼 수 있겠느냐?”(6:17)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노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9절)입니다. 그들은 능히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아 어린양과 보좌 앞에 서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현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 고난, 질병, 눈물, 한숨, 심판, 절망 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고후 4:17). 따라서 성도는 현세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어린양 앞에 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보좌에 계신 어린양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17절)

보좌에 계신 어린양은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 17절에는 접속사 ‘호티’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원인이나 이유 등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 앞에 두는 품사입니다. 접속사 ‘호티’는 17절 문장 앞에 위치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목자가 된다는 말은 ‘다스리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양 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둘째,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인도하셨듯이 미래에도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출 15:13)와 성령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요 16:13)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린양이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생명수 샘인 것입니다. 생명수 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상징합니다. 셋째,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어떤 경험이나 사건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적용과 나눔 II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거나 아픔 또는 슬픔을 겪었을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딤후 3:12)라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은 덜 받고 하나님의 복은 많이 누리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런 삶에는 경건함이나 믿음으로 사는 고백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경건한 성도들이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21:4)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병과 죽음과 슬픔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십니다. 고난과 슬픔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한숨과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 주시며, 더는 견딜 수 없어 다 포기하려는 순간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끝내 살려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통해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불완전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만사를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